

# 2024학년도 2학기 문헌연구보고서



무전공 입학의 유연한 실행을 위해

이름	진솔
전공	미디어 전공
학번	20240471

## 무전공 입학의 유연한 실행을 위해 '무전공 입학' 도입에 대한 지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미디어 광고학부 미디어 전공 20240471 진솔

### 목 차

- I. 서론
- II. '무전공 입학' 시행 시 우려되는 부분
  - 1. "인기 쏠림 현상"의 대비책 부재
  - 2. 무전공 입학생에 대한 진로 지원 부족
- III. '무전공 입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
  - 1. 학사제도의 유연화 정책
  - 2. 진로 설계 지원
- IV. 결론

### I. 서론

'무전공 입학'의 증대, 이것은 2024년 교육부가 한 화제의 발언이다. 사실 이 정책 자체를 보자면,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 지금 시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이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인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이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무전공 입학'을 도입시켰다고 한다.<sup>1)</sup> 이것은 정부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 학생들에게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하기 전에 자신의 전공을 정한 후 들어오지 않는다.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1학년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다양한 전공 수업들과 교양들을 직접 듣고 경험해나간다. 그 후, 2학년이 되었을 때, 자신이 배운 것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미래에 진로로 삼고 싶은 전공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잘 실행만 된다면, 정부, 학생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언제까지나 잘 실행되었을 경우의 이야기이다. 그 전부터 '자유전공'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들이 있긴 하였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또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유전공' 자체를 없앤 학교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2025년부터 도입될 '무전공 입학'의 증대가 제대로 실행될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이 정책이 발표된 그해에 바로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무전공 입학'을 도입시킨 학교들이 많기에, 잘 실행될지에 대한 문제는 더욱 미지수가 되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과연 정부와 각각의 학교들은 이러한 우려를 예상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잘해둔 것인가이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이 제도를 준비하고, 서서히 추진해나가는

1) 백두산(2024.08.19.), 「[본지-대교협 공동기획①] “주사위는 던져졌다”...자율전공선택제(무전공) 성공적 안착 위한 과제는」,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7270>(2024.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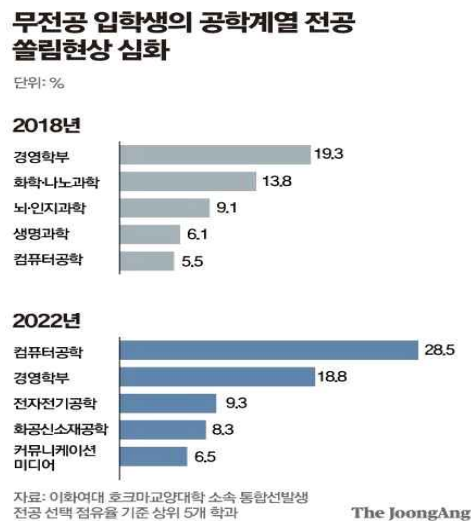
것이 아닌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임은희 대학 교육연구소 연구원 또한, 정부가 급하게 추진시킨 이 확대 정책은 여러 문제를 초래하기에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sup>2)</sup> 국민대 역시, 이 정책을 바로 내년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2025년 입학하는 신입생들 그리고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일 것이다. 하지만,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또한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한 영향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본 글에서는 ‘무전공’ 입학에 현재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이 정책이 모두를 위해 잘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II. ‘무전공 입학’ 시행 시 우려되는 부분

‘무전공 입학’을 실행하였을 때, 우려될 부분은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상이하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 ‘무전공 입학’을 실행시킬 제도가 아직 잘 마련되지 않았기에, 우려된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이들은 이 자체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에 우려된다고 이야기한다. 본 글에서는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 1. “인기 쏠림 현상”의 대비책 부재

[그림 3] 무전공 입학생의 전공 쏠림 현상



첫 번째로 말해볼 것은 [그림 1]<sup>3)</sup>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인기 쏠림 현상”이다. 위의 상황이 발생하면, 쏠리는 학과, 미달이 나는 학과 모두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대부분은 취업을 잘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전공으로 선택하려 하고, 그렇지 않은 전공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 현상은 현재 “무전공 입학”을 실행 중인 이화여대를 포함한

2) 김민제·김해정(2024.06.03.), 「무전공 선발 확대로 인기학과 쏠려 기초학문 고사 우려」, 《연합뉴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3143.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20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3143.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204)(2024.12.04.).

3) 이후연(2024.01.30.), 「이화여대 무전공, 4분의 1이 '컴공'...쏠림 현상 넘어야 성공한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5543>(2024.11.24.).

많은 대학에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이다.

첫 번째로 말할 문제는 학생들이 쏠리는 인기 학과가 당면할 문제이다. 바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한 것에서 나타난다. “무전공 입학”을 시행하기 전에는 이미 학교에서 정한 인원만을 선발하였기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무전공” 입학으로 학생들이 입학한 후 자유롭게 과를 선택하게 한다면, 이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국민대학교 총장은 “전공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겠다.”<sup>4)</sup>고 말하였다. 많은 학생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 취지이나, 학교가 그만큼의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실제 “무전공 입학”을 시행 중인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용환승 교수는 많은 학생 수를 감당할 강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과 한 수업에 들어가는 수강 인원을 늘렸을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며, 이에 대해 우려하였다.<sup>5)</sup>

두 번째는 학생 수 미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과들이 철학 등의 기초학문이다. 덕성여대에서 이 우려가 우리의 단순 걱정거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무전공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독어독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점차 없어져, 2025년부터는 독어독문과의 불어불문학 신입생을 아예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sup>6)</sup>학생들의 인기가 적은 과는 인원을 최소화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혜중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장은 “교육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전공 입학 비율을 늘려야 하는데 타 전공 정원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sup>7)</sup>라고 말했다. 사실 어떤 이는 시대에 달라짐에 따라 취업에 유리한 과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과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학문의 육성을 배제한 채로, 응용학문만을 키워나가겠다는 것은 기본은 챙기지 않은 채로, 결만 예쁘게 꾸미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실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인 강치원은 “다시 말해 모든 학문과 교육의 기초는 인문교육에 있다는 뜻이다. 인문학이나 교육의 토대가 바로 서지 못하고서는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sup>8)</sup>고 밝혔다.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대학교들에서 기초학문이 점차 없어지거나, 그 수가 적어지는 현상은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부분이다.

## 2. 무전공 입학생에 대한 진로 지원 부족

‘무전공 입학’을 실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더 잘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아무 전공 없이 들어온 학생들은 2학년 때 자기에게 맞는 전공을 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며, 이 자체가 더 큰 혼란일 수 있다. 이때 ‘무전공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교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무전공을 막 도입하는 학교들이 제대로 된 진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이다.

위의 우려는 아무 근거 없이 제시된 것이다. 아니다. “무전공 학생”들을 위한 진로 지원이 부족한 현상은 실제 권정현·김해숙(20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K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위 논문에서는 “무전공 입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혼란에 더하여 전공 자체가 없다는 압박감과 진로 탐색과 결정의 과업을 일체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해석을 함으로써 기존 대학 신입생들이 느끼는 것보다 큰 혼란감에 싸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신하영(2023.12.20.), 「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무전공 입학...전과도 자유롭게 개방」,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6406635840488&mediaCodeNo=257&OutLnkChk=Y>(2024.12.12.)

5) 이후연(2024.01.30.), 위의 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5543>(2024.12.28.)

6) 이은비(2024.04.24.), 「덕성여대, 내년부터 독문·불문과 신입생 안 뽑는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404241052314234](https://www.ytn.co.kr/_ln/0103_202404241052314234)(2024.12.15.).

7) 위와 같음.

8) 강치원(2002), 「기초학문 육성의 필요성」, 『대학교육』 1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쪽.

.”<sup>9)</sup>라고 밝혔다. 학생들이 느끼는 혼란은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 신입생의 50%가 진로 고민하는 것과 달리 무전공 입학생들의 진로 고민은 위 연구에서 100%인 걸로 나타났다.<sup>10)</sup> 즉, 위의 것들로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현재 무전공을 이미 실행 중인 학교들의 학생들은 ‘무전공’으로 인해 전공 선택이 자유로워만 졌을 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공이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학교에서 방치하고, 실질적인 진로 선택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정책을 도입만 시킬 뿐 구체적인 도움 방안을 마련해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정책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행시킬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무전공 입학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할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진로와 전공 선택적인 부분을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만 한다.

### Ⅲ. ‘무전공 입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

이미 많은 대학교에서는 무전공 입학생을 새로 혹은 확대하여 뽑은 상태이기에, 지금 와서 정책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현 상황에서의 최선은 이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위에 말한 우려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아래 글에서는 이 정책을 잘 실행시킬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즉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 1. 학사제도의 유연화 정책

이 정책을 제대로 실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 첫 번째는 학사제도의 유연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무전공’이 확대될 경우, 특정 인기과로의 사람은 더욱 몰리고, 철학 같은 기초학문에 가려는 사람들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또한 1년의 수업 후, 2학년에 바로 전공을 택하여 고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욱 큰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학교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보다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곳이 바로 한동대학교이다. 한동대학교에서는 약 30년 동안,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따라 학교를 유동적으로 운영해왔다고 한다.<sup>11)</sup> 이 학교에서 시행한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로, 최소 2개의 전공을 동시에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동대학교 기획처장은 복수전공 제도가 극단적인 전공 쏠림 현상을 막아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sup>12)</sup> 두 번째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과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하며, 겪을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더욱 부담 없이 많은 전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로 한동대를 다니는 한 학생은 "전과를 사실 세 번 한 상태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 같고 그만큼 결국에는 지금 전공하고 있는 ICT융합과 학생 설계로 UX설계를 복수 전공하게 되었습니다."<sup>13)</sup>라고 밝혔다.

9) 권정현·김해숙(2024), 「무전공 입학 대학생들의 자율전공학부 대학생활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30-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318쪽.

10) 위와 같음.

11) 진태희(2024.03.22.), 「[무전공 기획] 국내 최초 무전공 한동대…전공 쏠림 왜 적었나?」, 《EBS 뉴스12》,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457735/N#none>(2024.12.05.).

12) 위와 같음.

13) 위와 같음.

물론 학교마다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격이 다르기에 한동대학교와 같은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본래 대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무전공 입학’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긴 더욱 어려울 것이다. 무전공제도의 정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한 교수는 “특히, 무전공 전담 부서의 설치와 유연한 학사 규정의 마련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요하다.”<sup>14)</sup>라고 밝혔으며, 또 다른 한 교수 역시, “전공 자율 선택(부전공) 입학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향은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이다.”<sup>15)</sup>라고 밝혔다. 즉, 학교가 어떻든 간에 ‘무전공 입학’ 시행을 위해서는 유연화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에, 다른 학교들은 한동대학교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학교에 맞는 유연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 2. 진로 설계 지원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의 진로 설계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진로는 학생들이 사회가 나가 선택할 직업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본 글에서 말하는 진로 설계는 학생들 각각이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포함한다. 이것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의 사례이다. 서울대학교에서는 2023년부터 무전공 학생들을 위한 전공 설계 지원 센터를 따로 만들어, 그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sup>16)</sup> 두 번째는 이화여대이다. 이화여대의 무전공 입학생들에게는 전공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공 설명회와 전공 박람회가 그 예시이다.<sup>17)</sup> 이를 보도한 한 기사에서는 “7개 단과대가 참여하는 총 5개의 전공탐색 과목을 개설해 신입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도교수가 따로 배정돼 분반 또는 모둠 제도를 통해 모든 신입생을 밀착 지도하고 있다.”<sup>18)</sup>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일대일로 교수와 전공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가진다.<sup>19)</sup>이러한 것들을 통해,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더 깊이 자신의 전공 그리고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한 논문에서는 이 진로 설계 지원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sup>20)</sup> 그 결과 논문에서는 “개발된 집단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진로태도성숙이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진로태도성숙보다 향상되었다.”<sup>21)</sup>고 밝혔다. 물론, 한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진행하였기에, 모든 학생에게 이 결과가 일반화될 것이라 확정 짓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안 하는 것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건 확실하다.

14) 배정섭(2024), 「전공의 벽을 허물다: 4차 산업시대에서 한국 대학의 무전공제도 정착을 위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웰니스학회지』 19-3, 한국웰니스학회, 124쪽.

15) 윤옥한(2024), 「전공 자율 선택(무전공) 입학제도 정착 방안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6, 한국콘텐츠학회, 470쪽.

16) 황인석(2024), 「무전공입학시대, 고등교육에서 도덕윤리교육의 역할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와 학부대학 출범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도덕윤리교육학회, 113~114쪽.

17) 김호경(2018.12.27.), 「"입학후 1년간 전공탐색하고 내게 딱 맞는 학과 찾았어요".. 이화여대 문-이과 통합선발 도입 1년」, 《동아일보》, <http://v.daum.net/v/20181227030021540>(2024.12.05.).

18) 위와 같음.

19) 위와 같음.

20) 김하영 외(2020), 「대학 신입생의 진로태도성숙 향상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 무전공 입학생들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3-1, 한국진로교육학회, 194쪽.

21) 위와 같음.

#### IV. 결론

지금까지 써 내린 글만을 본다면, 자칫 ‘무전공 입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처럼 비춰질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는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세상을 위해, 앞으로 더욱 변해나갈 세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제도가 잘 정립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하며,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우려 점들이 해결되고,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언급되는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 이 현상은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으로써 작용하기에, 꼭 막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도록 막는 학생 진로 도움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만 한다. “무전공 입학”을 도입할 아니면 확대할 각각의 학교들은 위에서 언급한 유연화 제도를 통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써 발생하지 않도록 막길 바란다. 또한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무전공 학생’의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많은 지원을 해야만 한다.

물론 본 글에서 말한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이 외에도 ‘무전공 입학’을 제대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절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간 후에는, 이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현 정부와 각각의 대학교들은 이 안건의 중요성을 느끼며, 모두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만 한다.

## [참고 문헌]

### 1. 논문

- 강치원(2002), 「기초학문 육성의 필요성」, 『대학교육』 1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1~14쪽.
- 권정현·김해숙(2024), 「무전공 입학 대학생들의 자율전공학부 대학생활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30-4,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303~324쪽.
- 김하영 외(2020), 「대학 신입생의 진로태도성숙 향상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 무전공 입학생들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3-1, 한국진로교육학회.
- 배정섭(2024), 「전공의 벽을 허물다: 4차 산업시대에서 한국 대학의 무전공제도 정착을 위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웰니스학회지』 19-3, 한국웰니스학회, 119~125쪽.
- 윤옥한(2024), 「전공 자율 선택(무전공) 입학제도 정착 방안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6, 한국콘텐츠학회, 461~471쪽.
- 황인석(2024), 「무전공입학시대, 고등교육에서 도덕윤리과교육의 역할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와 학부 대학 출범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99~123쪽.

### 2. 기사

- 김민제·김해정(2024.06.03.), 「무전공 선발 확대로 인기학과 쏠려 기초학문 고사 우려」, 《연합뉴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3143.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20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3143.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204)(2024.12.04.).
- 김호경(2018.12.27.), 「"입학후 1년간 전공탐색하고 내게 딱 맞는 학과 찾았어요".. 이화여대 문-이과 통합선발 도입 1년」, 《동아일보》, <http://v.daum.net/v/20181227030021540>(2024.12.05.).
- 백두산(2024.08.19.), 「[본지-대교협 공동기획①] “주사위는 던져졌다”...자율전공선택제(무전공) 성공적 안착 위한 과제는」,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7270>(2024.11.24.).
- 신하영(2023.12.20.), 「정승렬 국민대 총장 "신입생 30% 무전공 입학...전과도 자유롭게 개방"」,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6406635840488&mediaCodeNo=257&OutLnkChk=Y>(2024.12.12.).
- 이은비(2024.04.24.), 「덕성여대, 내년부터 독문·불문과 신입생 안 뽑는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404241052314234](https://www.ytn.co.kr/_ln/0103_202404241052314234)(2024.12.15.).
- 이후연(2024.01.30.), 「이화여대 무전공, 4분의 1이 '컴공'...쏠림 현상 넘어야 성공한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5543>(2024.11.24.).
- 진태희(2024.03.22.), 「[무전공 기획] 국내 최초 무전공 한동대...전공 쏠림 왜 적었나?」, 《EBS 뉴스12》,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457735/N#none>(2024.12.05.).